Vol. 39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간 서신원 | 2019년 1호, 통권 39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19년 5월 1일 |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제9대 총장 현유광 박사 취임 인터뷰

1.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서신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일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지원할 마음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다른 분을 추천하면서 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원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에게 해보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순장학원 이사회와 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취임하시기 전에 학교에 기대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신원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특별히 지태일 교수님이 쓰신 "이계실 목사의 생애와 신학" 소논문을 입수하게 되어 설립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설립자의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의 정신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의 믿음과 삶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신학교가 되어야 하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3. 그러면 취임하신 후, 학교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서신원이 설립자와 순장교단의 정신과 전통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신원이 그 동안 순장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분위기를 쇄신할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신원을 통한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게 됩니다.

4. 취임 이후 교수, 직원, 학생들을 만나시며 소통하고 계신데, 대화를 할 때 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형편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신학교와 총장인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서신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에 1건 이상의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지 「서신원」도 계간으로 전환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분들과 소통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5. 총장 재임 기간 중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특히 총장님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은 목회학석사(M.Div.) 프로그램을 통해 신실하고 유능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순장교단의 발전은 목사 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순장교단 출신의 젊은이들이 매년 5명 내외 지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60대 전후의 장년 분들도 지원을 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시면 본인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총장님의 계획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 신학교육에 점진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교과과정을 우리 서신원에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많습니다. 신학생들과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닌, 교회를 위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장교단의 목사님들의 목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신학교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7. 특별히 21세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학교의 신학적 입장과 교육과정 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과과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단의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잘 가르쳐서 목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 이후의 요리문답의 중심 내용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교리'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교리입니다. 따라서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은 성경과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교육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군을 세우는 서신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학교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중장기 계획에서도 저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멘토링의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신원이 장기적으로 교수들보다 '청어람'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언제나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설 면에서 우선적인 일은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전자도서를 포함한 장서를 늘이는 것입니다. 저의 3년 동안의 임기 중에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동안 순장교단의 목사-장로-권사-집사-교우들이 서신원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의 직원-교수들이 하나 되어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서신원을 위해 순장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순장교단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 큰샘교회

(변일홍 목사/공주시 일락산 2길 6-1(봉황동 295번지))

목회 일념

큰샘교회로 이임해 오기 전에 대신교회에서 19년 가까이 사역했습니다. 그 19년이라는 기간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골 사역이라는 것이 편안함을 넘어 한 없이 게을러 질수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매너리즘(mannerism)을 극복하며 주의 사역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사역 기간은 목회자로서의 나에게 값진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기간은 아쉬움과 회한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게 19년의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역지인 큰샘교회로 2017년 9월6일(수) 청빙을 받아 수요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이 두 번째 사역지가 마지막 사역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때가 되어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입은 후로 줄 곳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나의 작은 생명이지만 한 알의 밀알로 드리려 합니다.

1.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설립하여 주신 교회임을 선언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웃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며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와 생명의 선교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 저의 교회 사역의 기초는 개혁주의적인 세계관, 교회관, 설교관, 교육관, 예배관, 선교관의 토대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3.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세워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사역자를 세우고 헌신된 일꾼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와 진리의 등대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 갈 것입니다.

4. 교회의 동력은 공동체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성도된 나 한 개인의 참여는 큰샘교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동력이 됩니다. 예배 참여, 구역모임 참여, 전도 참여, 헌금 참여, 1인 1사역 이상에 참여입니다.

5. 장차 완성될 하나님나라 안에서도 폐지되지 않는 제도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신앙고백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고백이며 극히 자발적인 헌신의 열매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예배를 통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참된 쉼을 누리며,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하고, 그리스도가 타인을 위해 존재하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십자가' 가 '믿어야 할 신앙의 관념'이 아니라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샘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은 이웃 섬김과 선교입니다. 그럴 때 큰샘교회는 열방에 감동을 주고, 함께 하고픈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7.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어두움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역사의 밝은 내일 또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만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나라는 종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룩하게 주도할 인재를 세우고 배출할 책임이 교회공동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일학교를 비전으로 품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거룩한 깃발을 들고 끊임없이 행진할 믿음의 후배, 믿음의 자손을 세우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통일조국을 섬기고 지구촌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유능한 하늘백성이 구름떼처럼 일어나는 교회공동체, 큰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전기금후원안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자님과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안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에 뜻을 두고 계신 교회, 기업, 졸업생,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숙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신원을 향한 기대

원우회장 서미정 전도사

오늘도 서신원의 하루는 언덕길을 오르는 숨찬 발걸음을 따라 시작됩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모여 든 원우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곳!
그 곳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서신원이 주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는서신원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작은 바램을 적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서신원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순장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80년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바로 이 곳 서신원을 통하여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서신원이 감당해야 할 몫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서신원의 사명과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를 사수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지 않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 서신원이 서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둘째, 참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룩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목회자가 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가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양떼를 사랑하는 목회자,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를 노력하는 목회자가 이 서신원을 통해 많이 양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장교단의 미래가 더욱 견고히 서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서신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이어져 가는 가슴 따뜻한 사랑의 서신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학년도 기부금 내역 (2018.03.01. ~ 2019.02.28.)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기부자명	금액
강금자	240,000	류성은	200,000	장성길	600,000	황기연	220,000
강미랑	110,000	민춘렬	200,000	장영철	110,000	황태근	110,000
강미영	550,000	박소순	500,000	장인성	110,000	황희자	120,000
강화순	100,000	박순자	110,000	전계현	100,000	YAN SHUNAI	240,000
고명성	120,000	박순희	120,000	전양순	120,000	성경주해세미나	590,000
공인애	50,000	박영선	120,000	전영희	600,000	무기명	3,000,000
구영희	110,000	박영심	2,100,000	전응현	220,000	루디아장학회	30,000,000
구희원	120,000	박예순	110,000	전재덕	600,000	연합전도회	2,000,000
권정남	110,000	박종숙	180,000	전정자	110,000	전국장로회	2,000,000
권태연	110,000	박천수	220,000	전충현	320,000	겨자씨교회	600,000
권태영	240,000	서상국	55,000	정미경	200,000	그공동체교회	150,000
기성숙	400,000	손영실	50,000	정보원	220,000	금하우리교회	200,000
길기한	110,000	신미경	110,000	정복희	110,000	대신교회	90,000
김군자	180,000	신은주	220,000	정선녀	260,000	대천교회	900,000
김민석	110,000	심은혜	750,000	정성기	220,000	동신교회	308,000
김방원	100,000	안인순	110,000	정은희	230,000	동천교회	5,806,000
김병호	110,000	안춘희	55,000	정의국	4,035,700	동천교회 유니게선교회	240,000
김복기	110,000	양명환	110,000	정정희	110,000	동천교회소망회	1,500,000
김석	180,000	양영자	300,000	조경휘	55,000	동천탁구동아리	100,000
김선성	110,000	오미경	60,000	조영철	240,000	새빛중앙교회	300,000
김성녀	120,000	우윤해	220,000	차명란	110,000	새소망교회	235,000
김성희	110,000	유미상	1,000,000	채승연	3,000,000	성산교회	350,000
김순금	110,000	유승인	120,000	천지용	100,000	숭덕교회	1,281,720
김순옥	110,000	유현희	520,000	최경림	110,000	신원예닮교회	6,284,500
김승자	120,000	윤성자	110,000	최근현	300,000	신원예닮교회 한나선교회	180,000
김여진	200,000	윤숙자	100,000	최동일	110,000	안천교회	6,300,000
김영애	240,000	이경아	60,000	최손생	120,000	염천교회	300,000
김윤도	350,000	이명순	110,000	최수연	240,000	영암교회	1,000,000
김은순	240,000	이성매	60,000	최영숙	330,000	영천교회	330,000
김은태	220,000	이세진	120,000	최원섭	120,000	좋은교회	300,000
김인숙	60,000	이승훈	120,000	최종윤	110,000	진잠제일교회	300,000
김정희	100,000	이예찬	60,000	최종임	110,000	창대교회	1,446,000
김준모	50,000	이용대	60,000	최주창	110,000	춘천교회	1,500,000
김춘자	110,000	이정희	120,000	최택규	180,000	큰샘교회	475,000
김현숙	220,000	이주철	1,000,000	최한이	540,000	한천교회	400,000
나성엽	120,000	임용태	220,000	최홍식	4,500,000		
남분식	110,000	임진화	220,000	한명학	100,000		
노수덕	220,000	장명분	110,000	한신희	110,000		

순장교단 · 서신원 소식

제9대 총장취임식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제9대 현유광 총장의 취임감사예배가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대천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식순에 의해 김동민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강철 이사장의 신임총장소개, 현유광 총장의 취임선서 및 취임사, 이죽봉 순장 증경총회장, 안민 고신대학교 총장, 김철봉 고신 증경총회장, 천환 고신 증경총회장,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교회 하늘소리중창단의 특송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 및 세미나 (2019.02.25~02.26)

제18회 학위수여식 (2019.02.14)

제4차 성경주해 키-세미나 (2019.02.18)

신입생현황

2019년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 정원 45명 중 신편입생 43명(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38명)으로 서울성경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순장교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안정 ·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7호 서신원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간: 1999.03.01. ~ 2017.02.28.

강태순	10,000,000	이남규	900,000
김대진	6,900,000	이운상	10,600,000
노왈수	12,500,000	이재성	5,422,920
박석순	11,000,000	이죽봉	45,110,000
배춘섭	900,000	임창일	2,100,000
송무현	2,100,000	장석조	2,100,000
심윤식	41,000,000	전재덕	231,200,000
안상천	20,000,000	정병기	24,200,000
안용섭	50,000,000	조항현	12,000,000
안향숙	10,000,000	지태일	16,418,990
오창윤	2,100,000	최송죽	100,000,000
유영술	66,000,0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http://www.sb.ac.kr